



관상가치가 높은 단풍나무(1)

가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나무로 누구나 쉽게 단풍나무를 꼽을 것이다. 어릴 적부터 빙글빙글 돌아가는 프로펠라처럼 생긴 열매를 가지고 놀던 추억과 아름다운 단풍 구경하러 산에 올랐던 기억들이 누구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을의 산은 단풍이 있어 더욱 빛이 나고 아름다운 것 같다. 이러한 우리 추억 속에서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단풍나무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단풍나무과에는 지구상에 단 두 속만이 존재하는데 *Acer*와 *Dipteronia* 속이 바로 그들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풍나무는 대부분 *Acer* 속에 속해 있는 식물을 말하며, *Dipteronia* 속 식물은 극히 보기 힘들다.

*Acer*라는 단어의 유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아주 오래전 로마인들이 단풍나무 목재를 이용하여 책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acernus'라는 형용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나무 강도가 아주 좋다는 의미인 'Acris'와 날카롭고 자극성이 있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어쨌든 *Acer* 속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753년



실장 김 종 근

천리포수목원 자원식물연구소
(Homepage: www.plusgarden.com,
E-mail: iloveplant@hotmail.com)



▲ *Acer palmatum* 'Shigitatsu-sawa' <잎>



▲ *Dipteronia sinensis* <신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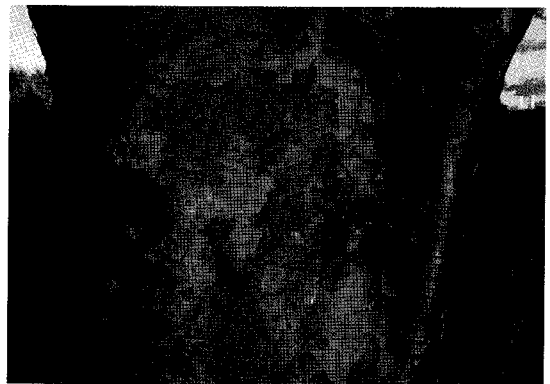
▲ *Acer rubrum* <꽃>

Linnaeus에 의해 'Species Plantarum'에서 확인이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지구상에는 *Acer* 속 식물이 적어도 120종 (Species) 이상과 수많은 변종, 아종 및 재배종이 자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단풍나무 (*Acer palmatum*)의 재배종은 무려 250여 종류 이상으로 해마다 새롭게 소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분포지역은 유럽, 북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등 북반구 온대지역으로 우리나라에는 당단풍, 섬단풍, 고로쇠나무, 복자기, 복장나무 등 약 13 종류(Taxa)가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풍나무류의 관상가치는 일반적으로 가을의 단풍을 두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제외하고도 여러 부분을 들 수 있다. 이는 원예품종에 따라 꽃, 신엽, 단풍, 소지, 수피 등의 특징적인 아름다움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꽃단풍 (*Acer rubrum*)처럼 이른 봄에 피는 화려한 붉은 꽃이 있는가 하면, 하나치루사토중국단풍 (*A. buergerianum* 'Hanachirusato')처럼 마치 꽃이 핀 듯한 착각에 빠질 것 같은 하얀색 신엽이 있으며, *A. campestre*처럼 코르크질이 발달한



▲ *Acer griseum* <수피>

매력적인 소지, 적피단풍 (*A. griseum*)처럼 종잇장같이 얇게 벗겨지는 아름다운 적갈색 수피 등이 바로 그들이다.

보통 식물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꽃을 가장 중요한 키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유독 단풍나무류들은 예외로 잎과 열매도 한몫을 한다. 이는 단풍나무의 꽃들이 아주 작아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단풍나무의 씨앗이 분류하는데 중요한 키가 되기도 하는데 그 시과의 벌어진 각이 바로 그것이다. 단풍나무의 경우 둔각으로 크게 벌어지며 설탕단풍은 예각으로 작게 벌어지는 등 각각 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단풍나무과의 일반적인 형태적 특징으로는 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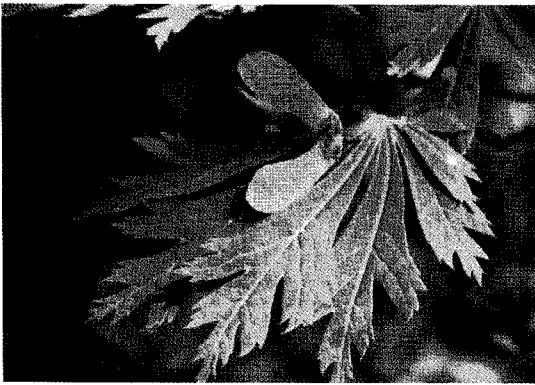
이 마주나는 것과 날개가 달린 열매 즉 시과가 달리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잎이 깊게 갈라지는 것을 큰 특징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Acer carpinifolium* 이나 *A. davidii* 처럼 갈라지지 않는 단엽으로 이루어진 것들도 있다.

단풍나무는 기본종의 경우 주로 종자로 번식하는데 씨앗이 익자마자 직파하거나 채취하여 저온 저장 또는 노천에 매장했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하

는 것이 좋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지나치게 씨앗이 건조하거나 숙성되면 발아율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씨앗은 너무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고, 채종 후 약 48시간 정도 물에 담가 놓은 후에 저장 또는 파종을 하는 것이 좋다. 이때 온도는 10-15℃를 유지하는 것이 발아에 좋다. 반면에 원예품종의 경우 대부분 접목을 하게 되는데 시기는 일반적인 접목의 경우 겨울이 좋고 눈접의 경우에는 늦여름이 좋다. 또 다른 원예품종들의 번식방법으로 삽목과 휘묻이가 있는데 삽목은 여름철의 녹지삽이 좋으며, 휘묻이는 토양의 상태를 고려하여 봄이나 가을철에 하는 것이 무난하다.

재배방법은 수종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배수가 잘되고 거름기가 풍부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보통 양지에서서도 잘 자라지만 약간 그늘진 곳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가지치기는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주로 늦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하는 것이 좋다.

이 글에서는 주로 천리포수목원에 들여와서 국내 적응이 잘되는 종류와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지만 조경수로 유망할 것으로 판단되는 몇몇 특징적인 단풍나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기로 하자.



▲ *Acer japonicum* 'Aconitifolium' <열매>



▲ *Acer rufinerve* <열매>

Acer buergerianum 'Hanachirusato'

1995년 일본 조경수협회로부터 들여온 식물로 현재 천리포수목원 본원 관리사무실 앞에서 잘 자라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단풍의 한 재배종으로 이른 봄철에 잎이 하얗게 나왔다가 차



▲ *Acer buergerianum* 'Hanachirusato' <신엽>



▲ *Acer campestre* <소지>



▲ *Acer buergerianum* 'Hanachirusato' <전체수형>

츄 연녹색으로 바뀌어 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잎이 처음 나올 때 마치 하얀 꽃이 피는 것처럼 아름다운 관상가치를 가지고 있고, 기본종의 특성도 그대로 간직하여 가을철의 빨갛게 물드는 단풍 또한 아름답다.

Acer campestre

1975년 미국의 Hess Nursery에서 들여온 식물로 유럽,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원산이다. 이 단풍나무는 잎이 3-5갈래로 갈라지는 낙엽성으로 황벽나무, 미국풍나무처럼 가지에 코르크질이 발달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Acer capillipes

1974년 미국의 Gossler Nursery에서 들여온 식물로 우리나라의 산겨릅나무와 비슷한 형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단풍나무는 일본 원산으로 약 10m까지 자라는 낙엽소교목이다. 이 식물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하얀 줄이 세로로 형성된 자주빛 수피인데 점차 녹색 또는 회녹색으로



▲ *Acer capillipes* <수피>

바뀐다.

Acer caudatifolium

필자가 영국왕립원예협회 Wisley Garden에서 근무할 때 찍었던 사진으로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잎의 형태를 보면 마치 우리나라의 신나무(*A. ginnala*)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가을철의 노란 단풍이 아주 아름답다.



▲ *Acer caudatifolium* <단풍>

Acer cissifolium

1981년 Yinger씨에 의해 일본에서부터 들여온 일본원산의 낙엽소교목으로 약 10m까지 자란다. 잎이 처음 나올 때 3개의 소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털이 보송보송하게 나있어 매우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다. 소지는 부드러우며 밝은 회색을 띠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Acer cissifolium* <신엽>

참고문헌

Alan Toogood(1999) RHS Propagating Plants. DK.

D. M. van Gelderen, P. C. de Jong, H. J. Oterdoom(1994) Mapeles of the World. Timber Press.

James G. S. Harris(2000) The Gardener's Guide to Growing Maples. David & Charles.

L. H. Bailey(1976) Hortus Third. Macmillan.

RHS(1996) A-Z Encyclopedia of Garden Plants. DK.

RHS(2004) RHS Plant Finder 2004-2005. DK.

W. J. Bean(1914) Tree & Shrubs Hardy in the British Isles Volume I. John Murray.

(다음 호에 계속)